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4호 [무게 제25467호] 주제105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녀성 방사포병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녀성방사포병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특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특군소장 박정현동지와 포병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4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지도해주시며 온 한희동안 포병싸움준비완성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명포수 운동의 불길속에 연마해온 백발백중의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녀성방사포병들의 사격경기를 주의깊게 보시며 지휘관들은 불의에 사격경기를 조직한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포병들이 언제 어느곳에서 포사격명령을 받아도 즉시에 명중포탄을 날릴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포병훈련을 실천환경에 접근된 실용적인 훈련

결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상륙지역에 공중감습하는 적직승기 특전대소대를 위한 녀성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통하여 녀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판정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시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를 불의에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녀성방사포병중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추위의 방법으로 정한 대련합부대별 포사격순차에 따라 대기전지

에서 임무를 접수한 녀성방사포병중대들이 화력전지에 기동전개하여 시사사격과 일제사격으로 목표를 사격한 다음 은폐전지로 신속히 철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

에서 임무를 접수한 녀성방사포병중대들이 화력전지에 기동전개하여 시사사격과 일제사격으로 목표를 사격한 다음 은폐전지로 신속히 철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에서 사격경기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력전지를 차지하는 녀성방사포병들의 전투행동을 바라보시면서 발목까지 빠지는 모래밭로 방사포를 끌기가 힘들겠는데 정말 용라고, 육체적한계에는 남성과 녀성의 차이가 있지만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녀성군인들의 충정심은 남성군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치하시면서 강한 혁명정신을 지닌 불굴의 무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드디어 포사격구령이 내렸다.

순간 멸적의 포신들에서 시별건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내뿜어졌고 천둥같은 폭음과 함께 자욱한 포연이 전지를 휘감으며 아래쳐올랐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간 포탄들이 목표들을 연속 타격하였다.

으로 확고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편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실천과 무관한 훈련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훈련한 대가를 싸움의 날 군인들이 흘리는 피로 치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군인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은 훈련에 대한 강한 요구성에서 표현된다고 말씀하시였다.

2 편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여성 방사포병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풍앙원위원회를 북송으로 사수하자!**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우리 조국의 만년 앞날은 강력한 총대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는것을 명심하고 포병싸움준비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할데 대한 문제, 명포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아,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남조선괴뢰들의 정수리에 명중탄만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들로 키울데 대한 문제 등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포병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여성방사포병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9군

단편하 여성방사포병중대가 1등을 쟁취하였으며 그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은성 깊은 시상상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여성방사포병사격경기에 참가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에 나오시였다.

몸걸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

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복을 지낸 군인들은 솟구치는 격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격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군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따듯이 고무격려 해주시고 사격경기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참가자들은 탕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영토를 더욱 세차게 일오입으로써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을 무적의 총대로 철옹성같이 보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

원수동지

나는 당신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시정운동 46주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시게 대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귀국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와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해 주시는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필정에 사의를 표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6년 11월 17일

디마스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스끄트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페하**

나는 오만추장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복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11월 17일

평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여성지도자, 전녀성리사회 《르세이외의 희망》연해변경지구 위원장, 메히코전국녀성동맹 위원장, 에파도르 《델라 마르테네스》녀성운동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타 맥스프레스회사 사장, 앙골라공화국 자이레주 통보부시정 보건부장, 2017년 특수산위인성총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제민주녀성동맹 부위원장, 전 국제민주녀성

동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승리와 영광을 떨치며 강화발전하여온 조선녀성운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속에는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며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온 조선

녀성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깃들여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녀성 권리문제를 해결하고 녀성운동을 높은 경지로 올려세워주시기 위한 김정은동지와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녀성들의 불패의 위력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축하를 보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축하합니다》 등의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꾸미는 녀성동맹, 팔레스타인녀성동맹, 튀니지전국녀성동맹, 아르헨티나녀성동맹,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부사회 총서기, 마자르도당 위원장,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이란이슬람교원협동부총비서, 국제민주녀성동맹 부위원장, 부위원장, 파르스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비아녀성동맹 위원장, 싱가포르녀성조직회사회 위원장, 전 국제민주녀성동맹 부위원장, 인디아전국녀성동맹 총서기, 벨라루스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나이지리아인민민주당 전국녀성지도자, 메히코전국녀성동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시아, 중국, 케냐는, 말레이시아, 바레인, 앙골라레슈, 파키스탄, 필리핀, 키르그리스, 요르단, 일본, 벨라루스, 노르웨이, 네델란드, 단마르크, 도이칠란드, 로모니아, 북독일, 그, 말타, 말라부세, 스위스, 케냐, 보르투갈,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이슬란드, 이탈리아, 에스파냐, 기네-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마르꼬, 모잠비크, 짐바브웨, 코프디보르, 민주콩고, 앙골라, 에리트리아, 가이아나, 파메말라, 도미니카, 브라질, 베네수엘라, 저메이카, 칠레, 크스타 리카, 팔레스타, 페루, 푸에르토리코, 에파도르, 엘살바도르의 녀성단체 및 국제기구들,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김정은동지의 헌명한 명도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지난 기간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기상과 모습은 녀성의 존엄과 권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든 나라 녀성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진행되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녀성동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김 정 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제 105 (2016)년 11월 17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우리 당과 뜻과 발걸음을 같이하고있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과 온 나라 여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여성동맹 제6차대회는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조선여성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시위하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성동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역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여성운동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여성운동입니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여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다른 근로단체들에 앞서 여성동맹을 창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여성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지위에서 세계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어가는 힘있는 령장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여성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명도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여성동맹을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정치로 여성들이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여성동맹과 여성들은 주체적여성운동의 전통을 빛내이며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수놓아왔습니다.

조선여성들은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결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결사 관철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 여성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이고 광심이었으며 의지이고 실천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성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피어린 투쟁을 벌였으며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과 후방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에

참가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순박하고 의리심이 강한 우리 나라 여성들은 사회와 집단, 혁명투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미풍과 헌신적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대가정을 빛내여왔습니다.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운해를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서 한복 단단히 하고있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키며 전회위부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북부피해복구전투장들에서도 녀맹원들이 펼쳐나 녀맹물격대활동과 예술선동대활동, 어러가지 좋은 일들을 하여 전투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들과 녀맹원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자랑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핵같은 충정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우리 나라 여성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이런 훌륭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당과 수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 조선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온 여성들과 녀맹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총정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명도 따라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여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전체 녀맹원들과 여성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비약하며 전진하는 주체혁명의 세시대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명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로선과 투쟁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동맹은 당의 명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입니다. 여성동맹은 주체의 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성동맹앞에 나서는 총직과업은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입니다.

여성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이것은 우리 당의 여성중시사상의 전면적구현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여성동맹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여성운동의 전통에서 기본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여성동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여성동맹, 우리 당의 여성동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여성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녀맹원들과 여성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들의 위엄을 깊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여성운동사상과 명도업적은 여성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초석입니다.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수령님들의 여성운동사상과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여성운동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동맹건설과 활동을 벌여나가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여성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이며 녀맹조직들이 일관하게 들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녀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의 무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결연히 옹호하고 결사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당중앙의 유일적명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동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녀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혁명의 혁명가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후대육성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큰몫을 맡고있는 여성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정치사상교양단체이며 사상교양사업은 녀맹조직들의 기본임무입니다. 녀맹조직들은 사상을 들어쥐고 언제나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반세계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녀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두의 혁명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견결한 반세계교양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과 여성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없애기 위한 교양과 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주아사상문화와 색이빠진 생활양식은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사회주의제도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며 녀맹원들과 여성들속에서 온갖 변태적인 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요소가 자라나지 못하게 맹아단계에서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에서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항일유격대식사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약동하는 시대의 요구와 여성들의 특성에 맞게 해설과 설부, 궁정감화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철인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중심교리를 바로 정하고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녀맹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녀맹조직안에 세워진 선전선동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책임해설가, 초급해설원, 녀맹해설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잡지 《조선여성》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녀맹원들과 여성들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편집하여 내보냄으로써 그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속에서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은 녀맹원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당과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녀맹원들이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받는 여성동맹의 한 성원이라는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동맹조직을 귀중히 여기며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이 언제나 동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이 동맹규약과 동맹생활규범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성동맹은 녀맹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조국의 무강변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며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펼쳐나 한몸바쳐야 할 전인민적인 투쟁입니다. 녀맹원들과 여성들은 전세대 여성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3 면 에 서 계 속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녀맹동맹사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녀성들의 총성의 대중운동이며 기특한 애국적소행입니다. 녀맹조직들에서는 녀맹원들의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열의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녀맹동맹사업들을 계속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녀맹원들속에서 누에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적극 조직진행하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향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오시기, 다라베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결약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알의 쌀이라도 더 절약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고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며 시대적요구와 기풍에 맞지 않는 온갖 시기와 허례허식, 낭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긴장한 로면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비약하며 전진하는 오늘의 만리마시에 모든 녀성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일할 나이의 녀성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무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한몫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예술선봉대활동을 비롯한 선봉사업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경제선봉의 복소리를 더 높이 올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높은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는 공민의 의무이며 조국을 보위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녀성들과 후대들의 참된 삶과 단란한 가정도 행복한 생활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세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비참한 현실은 총대이자 나라와 인민의 안전이고 녀성들의 존엄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이 수십년간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살아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 덕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이 당의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건강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세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전에서 오늘의 남강미울 녀성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은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여야 합니다. 군인가족들은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 최고사령부 작식대원답게 총잡은 남편의 믿음직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고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자녀들을 사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조국보위 초소에 세우는것을 혁명적가풍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어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후대들을 주체조선의 역센 기둥으로 키우는데서 지니고있는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녀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에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고생을 띠고 달려 여기며 사랑과 정을 바치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높은 기대의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락아소와 유치원들의 생활환경과 보육조건, 교육교양조건을 일신시키며 어린이보육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은 원아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고상한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 집단주의정신을 지니도록 잘 키워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으로 자라나게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자녀교양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녀교양에 힘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언행과 생활의 모든 계기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과정으로 되게 하여 아들딸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며 가정을 혁명적인 군인가정, 과학자가정, 애국자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려면 어머니 자신이 고상한 인간적, 혁명가적품성과 깊은 지식,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합니다.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잘 키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기풍, 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며 집단주의의 기초는 인간사랑입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속에서 동지와 혈육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생활을 락천적으로, 문화위생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의 웃음과 랑만이 넘쳐날 때 사회가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근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온 사회에 불꽃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웃자랑과 몸단장을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가정의 주부로서 집안팎을 알뜰히 거두고 식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가정생활을 문명하게 꾸려나가고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들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에서 꾸리기사업을 총성의 7월11일 붉은기둥, 인민안정위운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속에서 도덕기강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녀성들속에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녀성들자신은 물론 가정과 후대들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안례로서, 먹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언제나 배짱바르게 행동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녀성동맹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대에 거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녀성동맹과 녀성들은 조국통일3대원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녀성들의 투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녀성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녀성들, 녀성단체들과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녀성의 존엄과 권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든 나라 녀성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녀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각급 녀맹조직들의 지도기관을 당에 충실하고 실천투쟁에서 단련되고 정면된 능력있는 일꾼들과 핵심, 열성녀맹원들로 꾸리고 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을 강화하며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녀맹초급단체들의 전투력을 높여야 합니다. 녀맹초급단체는 녀성동맹의 말단기초조직이며 녀맹원들의 조직생활거점입니다. 녀성동맹은 녀맹초급단체들을 동맹규약상원칙에 따라 해당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지도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초급단체들을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전투적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 모범초급단체, 모범초급위원회평위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 대렬을 높이며 재판정사업을 동맹조직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녀맹중앙위원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통일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는 참모부입니다. 녀맹중앙위원회는 녀성동맹앞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의 정책적의도에 맞게 작전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중앙녀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녀성동맹안에 정연한 사업체제와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는 각급 녀맹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판찰하기 위한 동맹조직의 결정을 제때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사업체제, 아래단위 동맹조직들에 정성적으로 내려가 사업을 로해하고 대책하며 실속있게 도와주는 지도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녀맹사업을 동맹규약과 사업지도서에 따라 진행하는 규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녀맹일꾼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녀맹일꾼들은 우리 당의 방조자이며 녀성정치활동가, 녀맹대오의 기수입니다. 모든 녀맹일꾼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과 자력자강의 기풍,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세우며 앞달리고 견지며 꾸준하고 근면한 일본새를 적극 발양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녀성동맹을 중시하며 녀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기본은 녀맹조직들이 모든 사업과 활동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녀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의 사업으로 전환하며 당의 방침과 지시를 녀맹조직들에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그 집행을 장악지도하여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꾼들이 당의 정책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과 녀맹일꾼들의 자립성을 높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꾼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일감을 맡겨주고 평가사업도 잘하여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녀맹사업을 주동적으로 활기있게 벌려나간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 녀맹일꾼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인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녀맹일꾼대렬을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로해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며 녀맹일꾼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녀맹일꾼후비양성사업을 계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녀맹조직과 녀맹일꾼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녀성동맹의 특성과 조건에 맞지 않게 녀맹조직들에 과중한 과제를 망랑 내리먹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녀맹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녀성동맹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니다. 녀성동맹이 강화되고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힘차게 떨쳐나설 때 우리 혁명위업은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꾼들, 녀맹원들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녀성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의 녀성들과 녀맹원들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한 총정의 대회

##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동력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17일과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녀성동맹건설사상과 업적을 전철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병도따라 조선녀성운동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 녀성동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핵무산철폐위원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말에 녀성동맹이 조선민주녀성동맹 제5차대회이후 당의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녀성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논의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복색배귀를 띠고어나가는 힘있는 맥망으로 기쁘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일대 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장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주체의 사회주의화현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찬 모습을 상징하는 갖가지 꽃들이 형상화되어있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모든 녀성조직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녀성혁명조직으로 만들자!》,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펼쳐나가자!》,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구호들과 글판들이 나붙어있으며 녀성동맹기말들이 드리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급 녀성대표회의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편찬위원회의 당, 행정인원들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재조선민주녀성동맹합의 녀성인근대표단도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와 리일환 당중앙

위원회 부장, 녀성중앙위원회 책임인원들, 관계부서 인원들, 모범적인 녀성인원들, 녀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남주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단 단장, 리순남 재조선민주녀성동맹 녀성인근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장군관카》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되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감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녀성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함에 대하여
4. 녀성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5. 녀성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녀성동맹을 수령의 녀성동맹, 당의 녀성동맹으로, 수령정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어 주체혁명의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뛰어넘어나가야 할 불멸의 대장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크나큰 적정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녀성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첫째 의정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김정은 녀성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결심 위향한 전로따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은 세계에 일키며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어 녀성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말에 세기와 년대를 이어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5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녀성동맹이 핵무산철폐위원들의 탁월한 사상과 명도를 만들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 긍지높은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녀성조직건설과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승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가갈 길잡이를 밝혀주시고 녀성조직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철대국건설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승을 더욱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교과들을 발표하시어 선군시대 녀성동맹건설과 활봉에서 나서는 리순실현적분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 녀성동맹을 수령의 혁명조직, 당의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조직들을 수령의 사상과 명도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만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그 위력을 높이 펼쳐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막렬하고 세련된 명도와 끝없는 사랑과 믿음은 녀성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외곽단체, 선군시대 녀성혁명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 무한대의 힘의 원동력이었다.

녀성동맹은 당의 유일적명도체제가 확고히 선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동맹이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주고 모든 녀성조직들과 녀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명도를 녀성조직들과 녀성운동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녀성동맹안에 혁명적인 규율과 질서를 확고히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립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나라 녀성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라는것을 동맹규약에 명문화하고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도록 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들어취고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말에 녀성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현히 높이

모시고 철세위원들의 불멸의 병도업적을 전철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안착하고 사업하는 강철같은 기강이 확립된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녀성조직들과 녀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에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었다.

수많은 녀성조직들과 녀성원들이 금수산 태양광선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녀성중앙위원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지도표시기가 전립되고 혁명사적교양실과 선의 이룸지어주신 녀성화환이 녀성교양기점으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철세위원들의 병도업적이 갖은 단원들이 동맹사업의 전형으로 되었다.

녀성동맹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받들어 당의 방침과 지시를 즉시 전담집행하고 조직정치사업을 꿰고들어 죽이여 집행하는 혁명적기상이 확립되었다.

주제102(2013)년 12월엔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회의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모든 녀성조직들과 녀성원들, 녀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들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유일명도말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규율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녀성동맹이 그 어떤 풍동에도 흔들림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현한 주체의 태양으로 만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명실공히 수령의 녀성동맹, 총정의 내외로 튼튼히 다져진것은 가장 큰 성과이며 주되는 총화이다.

보고자는 녀성동맹이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기본업무로 들어취고 녀성원들을 선군시대 녀성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조직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중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조직들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정연한 조직사상생활체제를 세워주시어 녀성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맹사업에서 당의 유일관리체제를 철저히 지키고 주제사상, 선군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녀성들의 특성에 맞는 교양사업체제를 정연하게 세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동맹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의도에 맞게 동맹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녀성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참신하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정중포화, 현속포화, 명중포화를 풀이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활히 밝혀주시었다.

녀성조직들에서는 녀성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동맹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동맹조직생활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조직생활을 동맹규약과 규범대로 해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초급조직들을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수령정사옹위에 인생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보여주었으며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로 꿰차고 걸으며 조선녀성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녀성원들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친자처럼 키우고 전령포병,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는 미담과 미용이 수없이 펼쳐나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애국충정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데 위대한 공헌을 해주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애국충정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데 위대한 공헌을 해주었다.

녀성동맹은 녀성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당의 군사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조직들에서 녀성동맹적활동을 적극회하고 누에기기를 비롯한 나라에 보탬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쟁과 마라톤경기, 마라톤경기운동, 경협교환운동을 벌리고 조직하여 녀성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당과 수령을 받들고 전 동맹적으로 많은 활약과 조직력이 발전소와 사회주의협동법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과 대건설전구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녀성조직들에서는 출근길현열과 녀성애국운동대행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안면적과 누에고치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으며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장은 녀성원들의 믿음직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고 명사들의 천누이, 천어머니가 되어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배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군인가족들의 애국헌신의 기쁨은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몇몇이 내세우고 현열의 정으로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훈련하는 기쁨을 높이 발휘하였으며 수많은 《녀성》호포를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공헌하였다.

녀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뭇바사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 안해로서, 머느리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정과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적극 도모하였다.

녀성조직들에서는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선군시대의 맛이 내세워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벌리었다.

녀성애국소조공인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하여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녀성조직들의 전투력과 위력, 녀성원들의 애국적열정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것은 당의 병도말에 녀성동맹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보고자는 녀성동맹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가갈 길잡이를 뚜렷이 밝혀주시어 김정은동지를 손잡아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녀성원들과 녀성원들의 한길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웠으며 녀성동맹강화발전의 새로운 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오늘 녀성동맹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당의 인선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리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 조선소년단 축하하 시다 축하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학교에 갈 때도 보았답니다  
집으로 올 때도 보았답니다  
복소피 동동 붉은 기발 흔들며  
조국의 발걸음 힘차게 떠밀어주던  
어머니들의 낮익은 모습을

그 모습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들도 당대회결정판결에  
하나같이 떨쳐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200일전투로 들끓는  
조국방 한복판에서  
잔리마를 타고 생령 말려가는  
자랑많은 우리 어머니들

아 오늘날은  
김정은원수님 마흔째주신  
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열리어  
은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이 대회장으로 끌려가 불꽃처럼  
번뜩입니다

녀성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인진대, 충실한 당  
조자로  
녀맹원어머니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당당한 참전  
자, 위훈자로  
그처럼 믿고 내세워주시는 원수님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 적시는  
은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원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달려온 그 길엔  
승리자의 긍지가 넘치고  
열려갈 길엔  
끝없는 영광이 빛나는  
총정의 대회 투쟁의 대회

청년동맹의 표대자 조선소년단은  
은 나라 아들딸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어머니들  
앞가슴에 훈장이 반짝이는  
존경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봅니다  
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열리던 날  
김일성대원수님을 한자리에서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얼마나 무척껏 만세를 부르던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까

아 그날에 김일성대원수님  
장군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장군님을 잘 만났다고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이 대회장에 뜨겁게 들려  
옵니다

해방된 조국방에서  
당을 창건하시고  
제일 먼저 녀성동맹부러 무으시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맡겨  
주시고  
남녀평등원칙을 발표하시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 대원수님

지난날 출원의 봉선화처럼  
깃발히고 천대받던 어머니들을  
오늘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불굴의 강자로 키워주셨으니  
그래서 더욱더 목에이던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까

아, 녀성동맹 제5차대회가 열리던  
그날로부터 30여년  
김일성대원수님의 간곡하신 그  
당부들

가슴깊이 새기고  
녀성동맹은 아버지장군님의 손길  
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달려왔습  
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제인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승을 더욱 빛내어  
나가자》  
불멸의 로작으로  
녀성동맹이 나갈 길도 밝혀주  
시고

당중앙상가에 흐르던 불빛을  
야행자의 불빛으로 이어가시며  
어머니들을 선군시대의  
참된 혁명가로 이끌어주시신 장군님

초소를 찾으실 때마다  
어머니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이라고  
정중 담야 불러주시고

아들딸 많이 낳아 기우는것은  
어머니들의 용감한 본분인데도  
모성영웅의 금메달로 빛내  
주시고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시며  
숨은 공로자의 영예도 인정하셨습  
니다

어머니들모두가  
시대의 참된 친구자 되라고  
아버지장군님  
얼마나 많이 마음쓰셨습니까

잊을수 없습니다  
휴식날의 하루마저 다 미루시고  
녀맹원어머니들의 소박한 예술품  
연도 보여주신  
아버지장군님과 우리 원수님

녀맹원군들을 곁에 부르시어  
공연을 잘했다고  
녀성동맹이 가슴을 꼭 껴고  
양기있게 입을 더 잘하라고  
하시며  
해마다 공연을 보아주시겠다고  
사랑의 약속도 안겨주시신 장군님

아, 그날의 그 약속  
공이치는 12월의 눈보라속에  
가슴빛는 아름으로  
어머니들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될줄이야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장군님 장군님  
한눈길 건지 마시라  
노래에도 많이 담야  
그리고 간절히 불렀건만...

그래서 더욱더  
사무치는 그피움으로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 호느끼던  
밤이던  
원수님은 언제나  
어머니들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가슴마다  
대원수님들은 영원히 함께 계신  
다는  
불멸의 구호도 안겨주시고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이로  
진 동맹을 불러주시신 원수님

정녕 원수님 계셨기에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오늘도 이 대회장에  
관없는 축복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제100년대 첫 기슭에서  
3.8국제무녀절을 맞이하던 그날  
에도



어이하여 어머니들의 송과 노래가  
내 나라 푸른 하늘가에 울려라졌  
편가를

아, 천만년 거도 영원할  
대원수님들의 사랑으로  
어머니들 가슴마다에  
눈물의 얼음장들을 다 녹여주시며  
자애로운 한복에 안아주시신 원수님

녀성동맹을 강화하는것은  
대원수님들의 뜻이고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하시며  
진 동맹에  
혁명적근정신이 꼭 차고있지라고  
순수 일꾼들도 파견해주시고

녀성동맹이 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 하나라도 크게 내세워  
주시고  
녀맹원들의 작은 소행 하나라도  
은 나라가 다 알고  
신봉에도 맹메비존에도  
크게 내주시신 우리 원수님

우리 나라 력사에 처음으로  
어머니들도 제정해주시고  
작은 어머니들을 맞이하던 그날엔  
은 나라가 들쭉하게  
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어  
사람의 기념 사진까지 찍어주  
시며  
녀성동맹의 발걸음 더 높여주셨습  
니다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은 백전백승하고  
이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장고려 태위도  
후회가 없다고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을 찡니다

전생애나 평화나  
은 나라가 전선으로 달려던 날  
고지의 병사들과 한전호에서  
취사원이 되어 낮과 밤을 보내던  
한 녀맹원군의 소행도 다 아시고  
시는  
김정은원수님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아 그처럼 뜨겁게  
그처럼 다신하게  
그처럼 열렬하게  
은 나라 녀맹원들 한복에 안아주  
시는  
김정은원수님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대표어머니들  
불광은 창가에 앉아  
한장두장 회고록 펼쳐갈 때면  
우리의 마음속엔  
조용히 찾아오는 어머니가 있습  
니다

그 말씀은 정녕  
녀성동맹에 주신  
당의 크나큰 믿음이었었고  
어머니조국의 제일 큰 로양이었습  
니다

이제 그 어머니들이었습니까  
단팥마을의 한 초급단체위원장 할  
머니에게  
안겨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생각  
할 때면  
나어던 우리 가슴도 젖어듭니다

만부들과 아이들의 귀바라지를 하며  
웃음도 맑고 눈물도 맑던 그 한머  
니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간절한 소원까지 다 헤아리신  
우리 원수님

예순이 넘은 할머니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  
던 날  
원수님! 원수님! - 울며 호느끼며  
망기발자락에 얼굴을 묻던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뜻밖의 관공피해로  
은 나라가 북부전선으로 달려가던  
그날에도  
젓먹이 열미까지  
전투장을 못 떠났다고  
우리 녀맹원들이 한몸 단단히 한  
다고 하시며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은 백전백승하고  
이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장고려 태위도  
후회가 없다고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을 찡니다

아 그처럼 뜨겁게  
그처럼 다신하게  
그처럼 열렬하게  
은 나라 녀맹원들 한복에 안아주  
시는  
김정은원수님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대표어머니들  
불광은 창가에 앉아  
한장두장 회고록 펼쳐갈 때면  
우리의 마음속엔  
조용히 찾아오는 어머니가 있습  
니다

이제 그 어머니들이었습니까  
단팥마을의 한 초급단체위원장 할  
머니에게  
안겨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생각  
할 때면  
나어던 우리 가슴도 젖어듭니다

만부들과 아이들의 귀바라지를 하며  
웃음도 맑고 눈물도 맑던 그 한머  
니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간절한 소원까지 다 헤아리신  
우리 원수님

예순이 넘은 할머니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  
던 날  
원수님! 원수님! - 울며 호느끼며  
망기발자락에 얼굴을 묻던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뜻밖의 관공피해로  
은 나라가 북부전선으로 달려가던  
그날에도  
젓먹이 열미까지  
전투장을 못 떠났다고  
우리 녀맹원들이 한몸 단단히 한  
다고 하시며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은 백전백승하고  
이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장고려 태위도  
후회가 없다고 하시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을 찡니다

아 그처럼 뜨겁게  
그처럼 다신하게  
그처럼 열렬하게  
은 나라 녀맹원들 한복에 안아주  
시는  
김정은원수님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대표어머니들  
불광은 창가에 앉아  
한장두장 회고록 펼쳐갈 때면  
우리의 마음속엔  
조용히 찾아오는 어머니가 있습  
니다

이제 그 어머니들이었습니까  
단팥마을의 한 초급단체위원장 할  
머니에게  
안겨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생각  
할 때면  
나어던 우리 가슴도 젖어됩니다

만부들과 아이들의 귀바라지를 하며  
웃음도 맑고 눈물도 맑던 그 한머  
니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간절한 소원까지 다 헤아리신  
우리 원수님

예순이 넘은 할머니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  
던 날  
원수님! 원수님! - 울며 호느끼며  
망기발자락에 얼굴을 묻던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니  
조선의 하늘가에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올리시고  
인자하신 웃음 가득 안겨주시며  
은 나라 집집마다 함께 재웠기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시련담던 그 언덕들을  
웃으며 넘고 헤쳐온  
이 나라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까

애기들이 반짝 웃는 밤이면  
우리는 옛말처럼 들었습니다  
그년의 행군 그 어렵던 날들에  
혁명의 어머니들처럼 살고  
순물이 닳도록 풀뿌리를 캐던  
시도  
아버지장군님만을 그었다는 이  
아기

그것은 옛말이 아니었습니다  
떨떨한 뚝은 빈 가마에  
소리없이 눈물을 떨구면서도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라고  
어찌에 피멍이 지도록  
일떠를 못 떠나던 어머니들

우리는 자랑합니다  
사름치는 물런리 불길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보다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부터 먼저 생  
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  
으며  
사직지와 전적지들에서  
총성의 꽃으로 피어던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선군을 사랑하며  
자나깨나 마음의 총대를 놓지  
않고  
《녀맹》 호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강화에  
한몸을 다 바친 그 녀맹원어머니  
들을

한층의 열  
한이 고기라도 더 보내지고  
인명을 두지고 축사를 지으며  
아급라급 애쓰던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힘찬 산밭을 오르내리며 누에를  
치고  
한전의 살림군이 되어  
한층, 두층의 석탄도 다 모아가던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거리와 마을의 참된 주인이 되어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유치장과 공원  
아이들의 놀이터를 꾸리며  
애국의 한마음 다 바쳐온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그렇습니다  
창조와 거적으로 불꽃은 일러마다  
에서  
불꽃대의 기발을 펼칠 날리며  
한복이 그대로 불꽃이 되어 타던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와 거적으로 불꽃은 일러마다  
에서  
불꽃대의 기발을 펼칠 날리며  
한복이 그대로 불꽃이 되어 타던  
그 녀맹원어머니들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어깨동무 손잡고 찾아가는  
어린아동들이랑 자연박물관  
그 어디서나 총정의 구슬땀을 묻  
으며  
원수님께 기쁘신  
녀맹원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꽃김밥을 펼쳐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한결의 구름이라도 비껴세라  
백두의 불피성으로  
우리 행복 지켜주시는 원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치고 합쳐도 못다 비집고 그 사랑  
으로  
내 조국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모셔주세요

은 나라 가정의 김사용위의 총대  
가정  
은 나라의 아들딸들을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김사용위 총독관으로  
더 훌륭하게 키워주세요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의 앞날을 비쳐보는 거울  
그 거울앞에 설 때면  
나어던 우리 가슴도 종종  
헉니다

조선의 승리는 과학  
원수님과 함께라면  
원수님도 시련도 영광  
죽어도 못버릴 어머니들의 그 신  
념이  
우리 가슴에도 활활 타입니다

그 신념이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합일의 날 아등단원들처럼 살래요  
전화의 날  
소년군위대, 소년빨새들처럼 살  
래요

오직 원수님만을 따르는  
총정의 해바라기가 될래요

강성조선의 앞날을  
시력제 5집일대로  
성적중에 먼저 새기고  
자립성, 규율성, 집단주의 정신  
으로  
몸과 마음 혼돈의 다지며 섹씩하  
게 지라  
어머니들의 기쁨이 될래요

대표어머니들 우리는 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투 높이  
들고  
원수님뒤리에 굳게 붙어  
시대의 한복판에서 활개치며 나아  
가는  
어머니들의 자랑한 모습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회장에 다진 맹세를 지켜  
대표어머니들모두가  
은 나라 대표조직을  
강철의 대오로 꾸리고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  
회경축 평양시녀맹원들의 합창  
공연과 무도회 《일련단심 당  
을 따라 총정의 한길을 가리  
라》가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김

##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경축 평양시녀맹원들의 합창공연과 무도회 진행

수감동지와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제부원 일 병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실화와 합창 《인민의 환  
희》, 《조선의 모습》으로 시  
작된 공연무대에는 중창과 합

창 《수령님복속에서 불계 켜  
입니다》, 《선군시대 녀성한  
가》, 김을 따라 행복이 오  
네》, 3중창과 합창 《인정의  
세계》, 《원수님결에는 인민  
이 있습니다》, 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중독들이  
을었다.

출연자들은 조선녀성운동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녀성동맹  
을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  
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위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  
였으며 이 땅에서 녀성중심의  
대회원을 펼쳐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  
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구가하였다.

노래연극 《조선의 어머  
니》, 볼루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감사의 노래》는

관람자들에게 대를 이어 수명부,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대행운  
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에 특색한 공적  
을 쌓으신 위대한 어머니들의 고귀  
한 혁명영애를 가슴뜨겁게 되새  
겨주었다.

절세위인들의 어머니사랑  
에 시대와 력사의 힘있는 창조  
자로 낮은 삶을 누리며 애국  
의 넘과 승경로 조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준 우리 녀성들의  
정신세계가 총모마대에 차넘치  
었다.

관람자들에게 대를 이어 수명부,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대행운  
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에 특색한 공적  
을 쌓으신 위대한 어머니들의 고귀  
한 혁명영애를 가슴뜨겁게 되새  
겨주었다.

절세위인들의 어머니사랑  
에 시대와 력사의 힘있는 창조  
자로 낮은 삶을 누리며 애국  
의 넘과 승경로 조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준 우리 녀성들의  
정신세계가 총모마대에 차넘치  
었다.

출연자들은 조선녀성운동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녀성동맹  
을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  
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위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  
였으며 이 땅에서 녀성중심의  
대회원을 펼쳐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  
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구가하였다.

노래연극 《조선의 어머  
니》, 볼루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감사의 노래》는

관람자들에게 대를 이어 수명부,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대행운  
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에 특색한 공적  
을 쌓으신 위대한 어머니들의 고귀  
한 혁명영애를 가슴뜨겁게 되새  
겨주었다.

절세위인들의 어머니사랑  
에 시대와 력사의 힘있는 창조  
자로 낮은 삶을 누리며 애국  
의 넘과 승경로 조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준 우리 녀성들의  
정신세계가 총모마대에 차넘치  
었다.

